

여성영재 : 수퍼우먼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콤플렉스

전 경 원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目 次>

- I. 서언
- II. 한국의 전통적 여성교육
- III. 결어 및 제언

I. 서 언

미래의 유명한 학자들이 21세기의 주요 특징들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 것이 21세기에는 각계에 여성지도자가 대거 진출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활용하여야 한국 경제는 부활될 것이고, 한국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희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두뇌의 여성인력을 그대로 방치하여 21세기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고래로 한국의 우수한 여성이 그 능력에 걸맞는 성취를 했던 사람 - 성취 여성 - 이 드물고 미성취 여성이 많다. 아무리 금강석이라도 산 속에 파묻혀서 그 빛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한낱 돌에 불과하지 않는가? 미국의 무역대표 칼라힐스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파트너는 여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의 대처수상, 필립핀의 아키노,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의 여성 정치인들은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

21세기를 앞두고 한국에서는 여성영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로 보기보다는 '여성'으로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성영재의 성공은 당연시되고 격려되어 지지만 여성영재의 성취와 성공은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의미하게 되고, 그 문제는 실패 이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전경원, 1992).

지난 10년간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83년도부터 91년도 까지 설립된 9개 과학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12-20%정도이다(전경원, 1991). 이는 1990년의 6-12% (송용대, 1990)에 비해 여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구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영재의 교육은 남성영재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위대한 남성영재 10명을 손꼽기는 쉬워도 여성영재 10명을 생각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속에서 여성영재 교육은 어떠한가를 추적해 봐야 한다. 우리 조상중에 자녀교육의 대명사인 신사임당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적다. 그녀에게는 어린시절부터 멘터가 주위에 있었고, 누군가 그녀의 재능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허난설헌은 그녀의 뛰어난 재주가 가정환경으로 부터 기인한 것인지? 타고난 재능인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영재교육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어진 어머니요, 슬기로운 아내요, 효심이 지극한 사임당은 덕을 겸한 인격자로 학문과 시문에 능한 학자였고, 그림과 글씨에도 비범한 예술적 재능을 지녔고 고결한 여성이다. 난설헌 역시 신동이라 불렸으며 규수시인으로 재능이 탁월하였다.

이렇게 외국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중에서도 대표적인 여성영재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의 영재들만 분석해 왔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재의 부모교육 모델은 우리의 역사속에 숨쉬고 있는 귀중한 현인들 속에 존재함을 알고 우리의 전통속에 숨쉬고 있는 여성영재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재능을 지녔던 여성영재들이 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성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미래의 여성영재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대 한국 여성영재들의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관 아동관을 살펴보자. 아울러 여성영재 자신들의 삶의 철학관, 가치관, 자아

관은 어떠했는지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II. 한국의 전통적 여성교육

1. 전통적인 여성교육

전통적으로 한국은 여성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해왔는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출간된 1991년도 '여성백서'에서 한국 여성교육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었다. 그 첫 단계가 여성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없었던 시대에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로서 '전통적 여성교육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해당되며 여성들의 학문을 부도에서 어긋나는 일이라 여겼고, 주로 가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다. 여성교육을 위해서는 '규합총서', '규중요람', '계녀서', '여4서' 등의 여성 교훈서를 통해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와 '계녀서', '규범서'의 서적들은 태교와 자녀양육에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사회는 여성의 능력에 상관없이 유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예를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교육은 안방교육의 형태로 자녀양육방법과 가정내에서의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아들은 가르쳐 재능을 나타내도록 하고 딸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로 재능이 없었던 것이 미덕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만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소수 양반 계층을 위한 것으로 물론 여성은 이에서 제외되었음은 물론이다. 간혹 여성이 문자를 배울 수 있었을지라도 가정내에서 그쳤고, 이 또한 양반계층의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일이었다. 전통적 사회에서 여성이 독서를 하거나 시를 짓거나 하는 일은 남성의 일로 여겨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상당수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여 시를 짓거나 '논어', '소학', '사기'등을 읽기도 하여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부계 사회로서 남성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교육에도 남성의 입김이 많이 작용되었는지 아니면 아동의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몫으로 여기어서

영재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컸는지를 살펴보자. 전통사회의 여성은 남성을 사회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보조자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여성이 제 아무리 잠재적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여성자신의 '자아'를 찾거나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영재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의 재능이 어떻게 꽃피울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한마디로 조선시대는 삼국시대에 활발했던 여성활동과 달리 여성생활은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다. 여자가 유식하면 박복하다고 하여 여자에게는 글도 가르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던 조선시대에 그림재주를 닦았고, 글공부도 열중할 수 있었던 사임당과 글재주가 뛰어난 난설헌의 아동기 시절과 가정환경(아버지, 어머니, 형제)과 멘터등을 고찰해보자.

2. 조선시대의 여성영재

영재/재능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재능이란 문화적인 현상으로 원시시대에는 수렵과 낚시에 뛰어난 사람이, 그리스 시대에는 웅변이나 예술에 능한 사람이, 그리고 로마시대에는 군인이나 행정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재능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유전공학등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영재로 볼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는 것을 영재성이라고 보았다.

1) 성취여성영재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태어나면서 부터 인물이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나 부모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붓과 벼루를 들고 살았고, 천부의 재주인양 남달리 뛰어난 재질을 타고난 사임당은 부녀자의 법도는 물론 7세 때부터 그림공부를 시작하였고, 경전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으니 글, 글씨, 학문, 예술등에 눈부신 천재적 소양을 발휘하였다. 사임당은 뛰어난 인격자이면서 덕이 높은 부인이요, 현모이며, 효녀이며, 학문이 깊으면서 또한 시·서·화에 뛰어난 여류 명인이야 말로 전인적인 모범여성이라고 보고 있다.

여자란 다만 베짜고 길쌈하고 바느질 잘하면 그만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임

당은 그녀의 잠재능력을 발휘했다. 이은상(1957)은 중국 역사상 글씨와 그림으로 이름을 떨치던 여성들도 한 두 가지에만 능했으나 사임당은 종합적인 전인여성으로 사와 그림과 글씨까지 신묘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사임당뿐이라고 했다.

사임당의 탁월한 지적능력과 예술적인 능력은 원래 타고난 소질에 연유된 바라하겠으나, 특히 그 어머니 이씨가 친정 아버지 이사온과 외조부 최응현에게서 학문을 배운 현명한 부인이었으므로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때문이다. 과연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말은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사임당은 딸만 다섯인 친정에서 가장 총애를 받고 자란 몸이라 얼른 시댁으로 가지 못했던것 같다. 친정에서 머물다가 친정아버지가 별세하자 3년상을 마치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다.

즉, 사임당의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릴사위를 들인 것처럼 사임당의 어머니와 사임당 자신도 친정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물론 그녀가 친정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지으며 재능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율곡과 같은 훌륭한 학자를 키워낸 현모였지만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본다면 삼종지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모였지만 현처는 아니었다.

흔히 사임당을 출가하기 전에 부모에게는 효녀였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는 열녀였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훌륭한 주부이며, 아들을 잘 키워낸 삼종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사임당의 낭군 이원수공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관계로 글공부를 그리 많이 하지 않았고 박식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임당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부지간이었다(오시림, 1993). 사임당은 낭군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노력했다. 남편과 금슬이 좋지 않았고, 적지않은 실망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유안진(1991)은 '한국여성 누구인가'에서 사임당을 오해받는 여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임당은 훌륭한 아내도 아니었고 훌륭한 며느리는 더욱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전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례히 그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벼슬 자리를 옮기면 따라가서 내조하고 수발을 들었으나 그녀는 강릉 친정에서 그녀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갔고 자녀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유안진은 이러한 사임당을 콧대가 높고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을 지키며 자기답게 살았던 여성으로 보고 있다. 즉,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였고 자아의식이 강한 여성

이라고 보고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속으로 보아 여자는 남자와 같이 학문을 배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예술방면에서 기량을 발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첫째, 학자인 아버지의 혈통으로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점, 둘째, 아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셋째, 딸 다섯 중에서 둘째로서 가장 총명하고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 넷째,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손꼽을 수 있다.

사임당은 선천적으로 지적인 능력과 예술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도 그녀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즉, Renzulli(1977)는 영재의 개념으로 1) 보통 이상의 지적능력, 2) 창의성, 3) 과제집착력을 보고 있는데 사임당은 창의성과 지적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이 뛰어났으므로 현대적인 영재의 개념을 적용하여도 과히 영재라 할 수 있다.

사임당은 학문과 시와 문장에도 능했지만 그보다도 더욱 우월한 솜씨를 나타낸 영역은 그림과 글씨에서 라고 볼 수 있다. 즉, 훌륭한 예술가적 재능이 있었던 다재다능한 여성영재의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옛날 여성으로서 덕행을 쌓는 여가에 예술방면 까지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천부적으로 이러한 능력이 많았던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임당은 율곡과 같은 대학자를 낳기도 했지만 큰 딸 매창과 넷째 아들 옥산우는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그대로 타고났다. 맏딸 매창은 일찍부터 어머니 사임당의 규범을 좇았고 그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다. 학식뿐 아니라 인격, 지혜, 시, 글에서 뿐만 아니라 여자가 갖추어야 할 온갖 모든 것에 사임당을 이어 받아 7살 아래인 율곡에게 까지 많은 가르침을 준 여자 중의 군자이기도 했다. 율곡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시 누님에게 나아가 자문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오시림, 1993). 매창이 사임당의 재능을 가장 많이 이어받아서 그녀의 예능적 재능은 사임당을 빼놓은 듯하여 후대사람은 매창을 '작은 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넷째 아들인 우는 거문고, 글씨, 시, 그림 등 네 가지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니 사임당의 예술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사임당의 후손이 훌륭했던 것은 그 자신의 인품이 다정다감한 예술적인 면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도덕과 학문으로 자녀들을 원만히 교육한 결과라

하겠다. 이 점이 다시 한 번 여성으로서의 사임당의 가치를 높여주는 점이라 하겠다. 사임당이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율곡은 16살이었다.

다재다능한 사임당 자신은 영재로서 현대의 영재교육, 자녀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같이 혼탁한 사회에서는 영재 사임당의 교육을 그녀의 부모와 외조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고찰하여 현대 영재교육의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버지

사임당의 어머니는 신명화와 결혼하였지만 손이 귀한 친정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 이후 16년간을 신명화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친정에 머물렀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한양에서 생활을 하였고, 어머니는 강릉 오죽헌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이 사임당의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외가쪽의 훈육이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오시림, 1993). 손이 귀한 외가에서 사임당은 외조부 이사온공과 외조모 최씨의 극진한 사랑 속에 성장했다.

물론 많은 영향은 끼치지 못했지만 외조부 이사온의 학문, 어머니의 덕행뿐 아니라 학자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아들이 없었던 이유로 사임당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훈도를 받아왔다(손인수, 1987). 사임당이 13때에 아버지 신명화가 서울에서 진사에 올랐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고 사임당이 16세 때에는 이른바 기묘사화가 일어나 많은 학자들이 화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다행히 참화를 면하였다. 그간에 그는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는 데만 전념했고 그의 학문은 뒤에 사임당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사임당은 가정에서 일찍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훈계 밑에 학문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고, 아버지로 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처녀 때에 학문과 예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2)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을 아는 이는 무척 드물다. 신사임당의 모친 이씨는 무남독녀 외딸로서 귀하게 자라 학문도 배웠고, 삼강행실에도 밝았다. 이씨는 강릉 북평촌에서 처녀시절을 보내다가 한성에 사는 신명화에게 출가했다. 그러나 무남독녀이었기 때문에 출가한 후에도 계속 친정에 머물렀고 사임당은 아버지가 한성 본집에 있었으므로 어려서는 늘 어머니의 교훈 아래서 성장했다.

율곡이 18세 때에 그의 외조모 이씨 부인을 위해 ‘이씨감천기’라는 책 속에서 이씨 부인의 성격을 ‘말에는 서툴렀어도 행동에는 민활했고, 모든 것에 신중히 하되 옳은 일에는 과감했다.’라고 한것을 보면 부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사임당은 이씨 부인의 다섯 딸 중에 둘째로 태어나 어머니의 교훈 아래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는 사임당과 같은 딸을 낳았을 뿐 아니라 외손자 율곡에게 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영재들에게는 조부모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신사임당을 한국의 모범적인 규수로 키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린 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종지와 물감을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의 어린시절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 외조부모님도 계셨다. 물론 이 4분 중 누가 더 사임당의 재능을 발견하여 글과 그림을 지도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머니와 외조모의 뛰어난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오시림, 1993).

물론 사임당의 천재적 재능은 물론 타고난 것이었지만 아버지 신공과 어머니 이씨 부인의 교육적 영향도 컸다. 어머니 이씨는 사임당의 외조부 이사온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학문을 배운 현숙한 부인이었다. 사임당은 특히 어머니 이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출가한 후에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며 사임당의 일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멘터(mentor)

그녀의 그림은 특히 많은 학자들의 절찬을 받아왔고 안건의 화법을 배워 산수화와 포도화를 그렸다. 기록에 의하면 사임당은 일곱살(1510년) 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스승없이 공부를 시작했고, 세종 때 이름이 높았던 화가 안건의 화풍을 본받아 산수, 포도, 풀벌레 등 다양한 그림공부에 열중했다. 후에는 오히려 안건의 그림보다도 뛰어난 그림을 남겼다. 안건은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으며 대표작으로 몽유도원도, 적벽도, 청산백운도 등이 있다. 당대 인물화로 유명했던 최경과 쌍벽을 이룬 사람으로 전해져 온다. 물론 안건에게 직접 수학한 것은 아니지만 안건의 화법이 사임당의 예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다.

2) 미성취 여성영재 허난설현(1563-1569)

필자는 사임당과 더불어 허난설헌을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영재라고 본다.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여류문인 허난설헌은 신사임당, 황진이, 옥봉 등 중에서 제일 뛰어난 여류 문인으로 그녀는 어려서부터 감정이 섬세하고 글짓기와 독서에 능했다. 그녀의 이름은 초희, 난설헌은 호로서 그녀가 글을 지을 때는 호를 즐겨 썼기 때문에 본 이름보다 호로 통했다.

그녀의 놀잇감은 주로 '책'이었고 글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재주는 있었으나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바느질과 길쌈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속에서 지내다가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한 여성신동의 한으로 표현되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 세가지 한이 있다고 하여 삼한(三恨) 곧 '세가지 한탄'을 노래하였다. 그녀의 시재를 널리 펼칠 수 없는 조선풍토를 아쉬워하고 남성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허난설헌은 여성생활에 있어 엄동철한 같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그녀의 재기와 정열은 도저히 꽃 피울 수 없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미성취 여성영재라 볼 수 있다. 허난설헌은 다섯살 때부터 시를 짓고 아름다운 용모에 신동이라는 이름까지 들은 재원이었지만 27세로 요절한 규주시인으로서 조선시대가 요구한 여성상을 거부한 댓가로 시인으로서의 이름을 떨치지 못했다.

만약 그녀의 영재성이 부모와 남편과 시집식구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되어였다면 또는 그녀 자신이 글짓기 뿐만 아니라 가사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녀의 잠재적인 능력은 어느정도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이고 사임당과 같은 성취여성영재가 됐을 것이다.

그녀는 지식인으로서 심한 '허난설헌 콤플렉스'를 느꼈다. '허난설헌 콤플렉스'란 그녀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지식층의 여성으로 자아분열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열등감으로 현대 여성영재들도 공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명문 가문의 대학자의 딸로 태어나고, 명사들의 누이이며, 여학자요, 여류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종횡무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인 김성립은 물론 문벌은 좋았지만 보잘 것 없는 남편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갈등을 겪었다. 이것이 '허난설헌 콤플렉스'이며 현대 여성영재들도 느끼는 복잡미묘한 감정일 것이다.

서양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 '임포스터 현상'같은 것을 여성들이 느끼는 갈등으로 표현한데 비해 한국의 여성은 '허난설헌 콤플렉스'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허난설헌 콤플렉스를 씻기 위해 현대의 여성영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아버지 허엽

그녀의 집안은 당대에 손꼽히는 명문으로 그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서경덕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명종 원년에 진사(장원)으로서 갑과에 오른 이래 대사헌, 승지, 이조참의, 부제학등을 거쳐 판서에 까지 천망되었다. 허엽은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또한 문학가로서 그 위치가 확고하였으며 그 당시 정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다. 허씨 일가는 문자 그대로 명문가족이었다. 이러한 허난설헌의 어렸을 때 가정환경은 그 누구보다도 좋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 당시 여성에게는 문필적 교양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를 두려워하여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오빠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워 오히려 오빠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몰래 백가서를 들추고 크게 대성하려 했으나 결혼으로 인해 암초에 걸리고 만다. 결혼은 여성영재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경우이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경화도 그녀의 스승인 갈라미안이 결혼을 하면 음악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2) 형제들

허난설헌은 선조 2년 경상감사 허엽의 3남 2녀 가운데 세째로 위로 두명의 오빠 허성과 허봉이 있었고 아래로 허균이 있었다. 그녀의 두 오빠 역시 학문과 외교에 뛰어났고, 허균 역시 천재과인의 박학으로 학문에 능했다.

순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은 허씨 가문의 막내로 어렸을 때부터 비범하였고 9살때부터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허균 역시 신동으로 난설헌의 시인기질에 영향을 받아 9세 때 시를 지어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그는 난설헌의 문학적 정서에 크게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난설헌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막내 허균으로 그는 누이의 시를 모아 세상에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난설헌의 시와 시평이 소개되었으나 중국에는 시평을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하여 난설헌의 시집을 중국 사신에게 건네주었다. 주지번과 양유년 두 사신은 그녀의 시를 보고 감탄하여 명나라로 돌아가 '난설헌집'을 펴내어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다. 그

뒤로 중국의 여류들이 앞을 다투어 난설헌의 시를 애송했다 한다.

그녀의 둘째 오빠 허봉은 여동생의 시를 “내 누이동생의 시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나 당나라 시인의 것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두 오빠 허봉과 허송 그리고 동생 허균은 모두 훌륭하여 그 당시 허씨 집안을 삼허(三許)니 사허(四許)니 하여 형제 모두를 훌륭한 시인으로 손꼽았다. 두 오빠는 아버지와 더불어 조정의 훌륭한 신하로서 문장에 뛰어났고 외교사절로도 큰 역할을 하여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 어느 전기에도 허난설헌외에 또 한명의 딸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별로없다.

(3) 멘터

허난설헌과 허균 남매는 이달(李達)에게 동문수학했다. 그녀는 신동으로 이미 5세 때 많은 시를 지었고, 십여살 때는 당시(唐試) 3당(唐) 시인으로 일컫는 이달에게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달은 당시를 연구한 사람인데 한낱 초야에 묻혀 지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천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못하게 되어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갈망했고, 현실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달의 사상은 허균에게는 물론 허난설헌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달에게 수학을 하였던 그녀의 재능과 능력이 장안에 소문이 났고 뛰어난 시재로서 명성을 얻어 양가집 규수들은 허난설헌을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여덟살 때 ‘광한루 백옥루 상량문’이라는 장편시를 지었고, 이 글은 서울 장안에 나돌기 시작하여 그녀의 시재가 인정을 받게되고, 뒤에 정조도 이를 알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시를 짓는 능력이 탁월한 것은 선천적인 면도 컸지만 이달에게 정식으로 시를 배운 영향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어 및 제언

위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교육과 이조시대의 대표적인 두 여성영재의 가정 환경과 멘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사임당은 48세, 난설헌은 28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아 두 여성은 단명했고, 그들과 지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을 만나 ‘허난설헌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았던 남편복이 없었다는 공통

점외에 영재로서 사임당과 난설헌 유사점을 세가지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여성의 가정환경은 양반 출신으로 여성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문적인 가정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이조시대에는 양반들에만 글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여성 모두 양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사임당은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녀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었다. 학자인 아버지 신명화와 엄격한 훈계 밑에서 학문에 열중할 수 있었고, 손이 귀한 외가에서 외조부와 외조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

난설헌은 학자인 아버지 허엽과 동생 허균뿐 아니라 훌륭한 문장가인 허봉과 허송 오빠등이 있어서 글을 익히기에 최적의 가정 분위기였다. 아버지 허엽은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또한 문학가로서 그 위치가 확고하였으며 허씨 일가는 문자 그대로 명문가족이었다. 이러한 허난설헌의 어렸을 때 가정환경은 그 당시 다른 여성과 비교해서 학문에 접근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두 여성은 사대부 집안의 딸로 학문과 시가를 애호하고 탐닉하면서 그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살았던 것은 아동기를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경우도 그들 각자에게 영향을 끼칠 멘터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임당의 멘터 안건은 사임당의 화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허난설헌의 멘터 이달은 원래 허균의 멘터였으나 곁에서 난설헌은 이달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받았다. 즉, 멘터가 두 여성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들의 재능과 개인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재능세계를 펼쳐나가는 데 큰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멘터는 두 여성의 재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만약에 이러한 멘터가 없었다면 그들의 영재성은 전혀 발견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해 남성보다 여성들이 멘터를 더 필요로 하고 뛰어난 여성영재 뒤에는 멘터가 있었다(Kerr, 1987).

우선 멘터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멘터’는 오딧세이의 신뢰할 만한 멘터로부터 유래했다. 즉, 오딧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으로 아들 곁을 떠나가 있는 동안 아들을 그의 죽마고우인 멘터에게 맡긴데서 부터 시작했다. 멘터는 오딧세이의 심복으로 오딧세이가 부하를 이끌고 출정하기 전에 그의 집안 일과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로 맡겼다. 멘터는 텔레마코스의 지도와 학습을 담당했다. 텔레마코스에게 멘터의 역할은 컸고, 호머의 대 서사시 오딧세이에서 아테네는 오딧세이의

옛 친구 멘터의 모습을 빌어 텔레마코스를 격려도 해주고 백성들을 모아 구혼자의 횡포를 규탄하도록 도와준다.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사사했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사사했다. 이러한 멘터프로그램(사사제도)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학습방법이라 볼 수 있다. 현대 영재교육에서 멘터제도란 영재를 1:1로 지도해 줄 전문가에게 보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심화학습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멘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재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내적인 동기유발을 시켜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있다 (Boston, 1976 : Cox & Daniel, 1983).

셋째, 두 여성 모두 독서와 글짓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재들은 독서광신자들이다. 대부분의 여성영재들은 세계의 정보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독서를 하면서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Kerr, 1987).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어려서부터 많은 양의 독서를 했고, 결혼 후에도 독서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임당의 아버지는 학자로서 집안에서 늘 학문적인 분위기였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난설헌은 명문가족의 가정에서 세명의 남자 형제들과 문장실력을 견주어 볼 수 있었고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다. 결혼 후에도 문벌가인 남편 김성립의 집에서 서고에 쌓여 있는 수 많은 책과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서와 강의는 남성의 일이고 여성은 길쌈을 하는 것을 요구했던 조선시대에도 두 여성은 곳곳하게 자아실현을 위해 독서와 글짓기에 열중했다.

Kerr(1987)는 그녀의 저서 “영재여성”에서 뛰어난 여성영재의 공통적인 특성에 관해 연구를 했다. 그 예로 Eleanor Roosevelt, Margaret Mead는 독서에 심취했고, Georgia O’Keeffe, Beverly Sills는 그들의 다른 책임을 소홀히 하면 서까지 그들 영역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 여성영재들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가족들부터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했다. Kerr는 여성영재의 독서에 대해 “독서광들인 여성영재들은 책을 통해서 위대한 사고를 하게 되고 표현의 선봉역할을 하게 되었다. 책은 곧 여성영재에게는 상담가요, 조언가요, 교사요, 부모인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다.

넷째, 두 여성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을 의식하지 않았다. 허난설헌은 짧은 28

세의 삶을 살면서 그 어느 시점에선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나섰을 것이고 결혼 후까지도 이러한 의식을 지녔으므로 고부간의 갈등 및 부부기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이다. 사임당도 덕은 있었으나 현처나 훌륭한 며느리로서 삼종지도의 예를 모두 지킨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재능세계를 위해 최소한 역할만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여성영재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거의 모든 여성영재는 전통적 성역할로 인한 잠재적 제한점을 개의치 않고 마음을 굳히고 ‘성(gender)’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라고 Kerr(1987)는 말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영재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여과하지 않은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외에 사임당과 난설헌 두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점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수행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와 문화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성역할의 수행정도에 따라 여성영재의 인생사가 다르게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임당과 난설헌은 여성에게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주지않는 철저한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태어났다. 두 여성 모두 재능이 뛰어났지만 허난설헌에 비해 사임당은 만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그녀의 업적을 기리지만 난설헌은 현모양처로서, 훌륭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임당 역시 현처도 아니었고 훌륭한 며느리도 아니었지만 난설헌과 같이 시부모와 남편의 확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녀가 친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갈등이 생길만한 틈을 주지않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유교경전에도 능했지만 글씨와 문장에도 능숙했으며 바느질과 자수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기 때문에 세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다. 종합해 보면 사임당은 현실을 직시하여 지혜롭게 행동을 취한 과감한 여성이었다.

반면에 허난설헌은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부덕이 높고 침선과 베짜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침선과 베짜는 일은 등한시하고 독서와 글짓기를 즐겨했으므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확대를 받았다. 즉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던 여성인 사임당은 현대의 귀감이 되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여성의 일인 길쌈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난설헌의 이야기는 후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사임당이 시택에서 주로 살면서 난설헌과 같이 그림과 시에만 몰두하고 침선을 게을리 했다면 또는 난설헌이 조금만 침선을 잘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의 경로는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여성영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기대되어지는 바람직한 여성상이란 무엇인가? 사임당과 같은 슈퍼우먼형의 여성영재이기를 요구하는가? 허난설헌 같이 그녀의 영재성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느끼고, 결국 자신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킨채 가사와 양육에 충실하여 사랑받는 여성이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의 여성영재들은 아직도 허난설헌 콤플렉스에서 허덕이거나, 아니면 가정과 자신의 일 모두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슈퍼우먼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허난설헌이기를 계속 강조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쉬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여성영재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며 그녀의 재능을 사장시켜 버린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여성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의 부모는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다. 근래처럼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적은 일찌기 없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부모를 위한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면서 부모들은 자칫하면 흔들리기 쉽다. 비들랙이 최근에 펴낸 27명의 천재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천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는 것이다.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양육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임당의 부모와 외조부모는 비록 조선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성인 사임당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의 잠재력 개발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가? 특히 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문화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그룹이어서 여성의 영재성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부터 인정을 하지 않으면 또는 주위에서 그 누군가가 그녀의 영재성을 인정해 주고 개발하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그녀의 빛나는 금광석은 흙속에 파묻혀 영원히 제 빛을 발휘 못할 것이다.

둘째, 영재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재라고 해서 복합적인 재능을 모두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재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능력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세가지 정도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지닌 경우가 흔하지 않다. 사임당의 경우는 모든 능력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었고 가사와 양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는데 한치 소홀함이 없었고 비교적 가사와 양육을 조화롭게 가정생활을 영위했다. 반면에 난설헌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 대상이었던 글짓기와 독서에만 치중하였고 수퍼우먼이기를 거부한 댓가로 자아갈등을 심하게 겪었을 것이다.

Kerr(1987)는 그녀의 저서 '여성영재'에서 여성영재는 그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나타냈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아동기 때 재능이나 능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은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성영재는 우수한 교육적 혜택을 받고 학문적 뿐만 아니라 일반영역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대부분이 간헐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관심영역에서만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영재라고 하면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취를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은 전문적인 직업세계 외에 가사와 양육이라는 책임이 막중하지 않은가? 직업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두가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수퍼우먼형의 여성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여성영재들은 수퍼우먼이기를 자초하면서 그녀의 내부에서는 난설헌과 같은 갈등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 송용대(1990).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여성신문사(1992). 여성이야기, 서울 : 여성신문사.
 역대 인물한국사(조선시대 편), 신화출판사, pp.240-256, pp.300-309.
 유안진(1991). 한국여성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 자유문학사.
 이은상(1957).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서울 : 성문각.
 이동주(1972). “한국회화소사”, 서울 : 서문당.

- 전경원(1991). “한국 과학영재 여학생과 남학생의 정신건강비교연구,” 과학영재연구 1(1), pp.143-167.
- 전경원(1992).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서울 : 양서원.
-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pp.111-112.
- Boston, B. (1976). *The Sorcerer’s apprentice*. Reston, Va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Cox, J., & Daniel, N. (1983). The role of the mentor, *G/C/T*, Sept./Ocr., 54-61.
- Bidlack, G. H. (). Unlikely beginnings.
- Jeon, Kyung-Won(1993). Perspectives on gifted disadvantaged in Korea. In Belle Wallace “World Perspectives on the Gifted Disadvantaged.” Bicester, England : Academic Publisher.
- Jeon, Kyung-Won & Ristow, R. (1991). Perceptions of teachers of the gifted toward characteristic behaviors of gifted females in rural school and Talented Children. A book of proceeding for the 8th world Coufarence of Gifted.
- Kerr, B. A. (1987). *Smarted girls, gifted women*. Columbus, Ohio : Ohio Psychology Publishing Company.
- Renzulli, J. (1977). What makes giftedness? *Phi Delta Kappan*, 60, 100-184.